

전북 바이오기업 美시장 공략...BIO USA 2026 참가

세계 최대 바이오산업 박람회 도내 유망기업 6곳 첨단기술 선포 전북IP 한국 공동관 참여 홍보 'IR데이' 열어 글로벌 협력망 확대

전북도는 세계 최대 바이오산업 박람회인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BIO USA 2026)'에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 6개사와 함께 참가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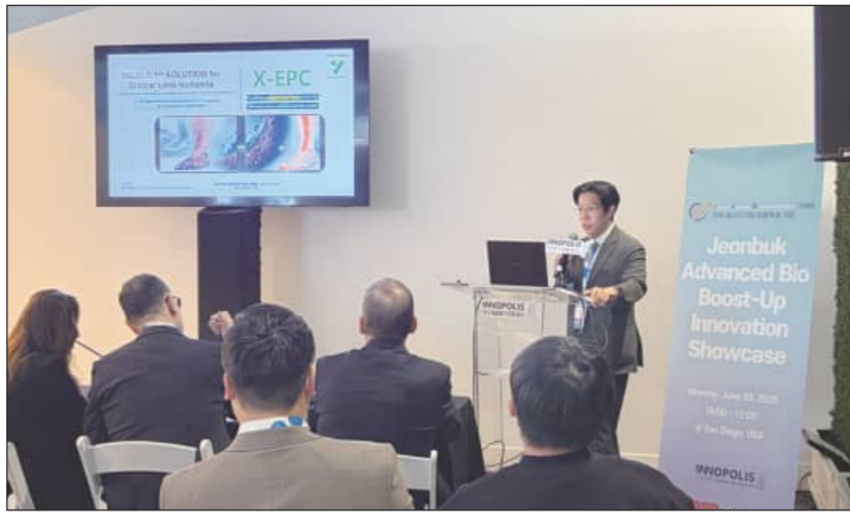
'BIO USA 2026'은 현지시간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며 전 세계 1,600여 개 기업과 2만여 명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행사다. 올해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과 세포·유전자 치료, 바이오 제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국내 11개 기관은 '한국 공동관(Korea Bio Health Hub)'을 운영하며 국내 바이오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는 노보렉스㈜, 메디사피엔스㈜, (주)바이엘티, (주)아이메디텍, (주)플라스바이오, 유스바이오글로벌 등 도내 6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정밀의료 솔루션, 바이러스 치료 플랫폼, 재생의료 기기, 비임상 평가 기술 등 첨단 바이오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계획이다.

특히 메디사피엔스㈜와 (주)아이메디텍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IR)을 진행하며 희귀질환 진단보조 솔루션과 나노섬유 기반 재생의료기기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24일에는 '전북 글로벌 커넥트 IR 데이'를 열어 도내 바이오기업과 미국



<사진=전북도>

현지 투자전문가, 사업개발 전문가 간 네트워킹을 진행한다. 기업별 IR 발표와 투자 상담을 통해 후속 투자유치와 글로벌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해외 사업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BIO USA 2026 참가는 도내 바이오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전북 바이오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조승래 "지지율 하락, 가장 큰 책임은 당에"

"선거 패배 실망감 크게 작용... 정청태 조만간 거취 정리할 듯"



조승래 사무총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급락'과 관련 "가장 큰 책임은 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표현하신 것처럼 (지반선거에서)이겨야 할 곳을 이기지 못했던 실망감이 당 지지율에 크게 매우 크다는 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평가나 정당대회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지나치게 갈등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도 있다"면서 "민생 문제와 개혁 과제를 빨리 여권이 정리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시끄럽지만 하나는 국민적 불만과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급락'에 대해 "당 책임감을 갖고 일할 때"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당연히 같은 맥락"이라며 대립을 피했다.

하지만 조 사무총장은 '송영길의원의 정청태 대표의 연인포기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논쟁하는 것은 정당대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송 의원이 당대표로 도전한다면 당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며, 개혁과제와 민생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 말하는 것이 좋다"고 꼬집었다.

조 사무총장은 '정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조만간 거취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본다"며 차기 전대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한병도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 몫"

원구성 협상 교착에 강경 입장 "의석수 배분 또는 단독 구성" 국민의힘 향해 협상 참여 촉구



한병도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거나 (반대하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라는 입장과 관련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를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법

사위원장을 통해 내란 수괴 파면과 내란 일당 심판, 민생 예산과 민생 입법을 통한 민생 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많은 성과를 올렸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의 기본 원칙"이라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 마냥 기다리지만 않겠다. 과거 관례처럼 협의와 협상 때문에 국회가 일하지 않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의석수대로 (여야) 11 대 7로 나누는 문제, (국힘이) 계속 시간 끌기만 했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두 가지를 놓고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강경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민생 입

법과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맡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원내대표의 결단"에 대해 "다른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오늘과 내일 논의를 지켜보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겠느냐"고 직답을 피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4일) 낮 12시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1면에서 이어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도 두텁게 한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 2,700명에서 올해 4,139명으로 53.3% 늘었고, 예산도 19억 원으로 46.2% 확대해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는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도민의 식생활 역량을 키우기 위해 5억 2,000만 원 규모의 먹거리 돌봄 교육도 추진 중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 교육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험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먹거리 돌봄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모든 도민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전북형 먹거리 복지 체계를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공익직불금 감액 예방 총력

청년농 참여 민관협의체 열어 4-H연합회 선배 농가 직접 안내

전북도는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북특별자치도 4-H연합회, 14개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전북형 공익직불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구성된 민·관 협력 모델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농가들이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직불금 감액(총액의 10%) 사례를 예방하고 농민의 정당한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형 공익직불금 감액 ZERO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집중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올해 캠페인은 지역 청년 농업인(4-H 연

합회)들이 주도해 선배 농업인들을 직접 방문하고 눈높이 설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도는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준수 의지를 높여 단순 부주의로 인한 감액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신중 전북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은 "지난해부터 다져온 민·관의 든든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올해는 제도를 몰라 감액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캠페인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바로 뛰는 청년 농업인들의 열정이 모여 농민의 소중한 결실을 온전히 지키고, 전북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윤준병,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 대표 발의

기후위기 대응 하천관리체계 개편 하천정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심화되고 있는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하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보다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고보조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및 권한은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하지만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방 정비 완료 구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국가하천에 비해 낮아 하천 관리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관리 책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국

가 관리하여야 하는 지방하천을 '국가 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능력과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의 영역이 되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해 주세요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텀블러

스테인리스, 대나무 등의 재질 빨대·젓는 막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우산비닐



우산 빗물 제거기

편의점, 슈퍼마켓 등



비닐봉투



장바구니

전주시 기습 폭우 대비 가동천 하천정비 박차

교량 9개소 재가설 등에 총 114억원 투입

전주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하천 범람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114억 원을 투입해 '가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착공해 오

는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완산구 덕천사 입구 부근에서 지방하천인 삼천 합류점까지 총연장 2.6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고, 노후화되었거나 교량 아래 공간이 낮아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교량 9개소를 재가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공사계약 후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일시정지했던 공사를 지난 5월부터 본격 해제하고

제작공에 돌입했다. 제작공에 앞서 지난해 12월 하천구역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했으며, 올해 1월에는 보상 계획 공고와 토지분할을 마무리해 면적 대비 49%의 보상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둔 지난 5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착수하고,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후 시는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기

상 상황을 고려한 치수별 공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토지 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등 토지 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시는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해당 하천 일대의 통수능력이 크게 확대돼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도 인근 주민들이 침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가맥축제 '가맥지기' 발대식이 23일 펼쳐졌다 <사진=전주시>

'2026 전주가맥축제' 가맥지기 발대식

가맥축제 8월 6일~8일 개최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

'전주가맥축제' 가맥지기 발대식이 23일 펼쳐졌다.

'전주가맥축제'는 전주만의 독특한 문화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가맥축제'는 전주만의 특별한 가맥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와 가맥지기, 기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가맥 문화가 전주를 넘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가맥지기'는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으로, 축제 운영과 홍보, 대외협력까지 전주가맥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올해도 앞장서게 된다.

이성일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장은 "가맥지기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 덕분에 가맥축제가 매년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올해도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만의 특별한 가맥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와 가맥지기, 기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가맥 문화가 전주를 넘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주가맥축제는 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 일원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재개발사업 핵심 공정에 지역업체 참여 이끌어

진북동 동양아파트 재개발 공사 지역업체 철근콘크리트공사 참여

전주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관련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핵심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사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덕진구 진북동에서 진행 중인 골드클래스 시그니처로 10개동, 지상 20층, 654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 사

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 신만호),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대표 정종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와 지난 3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60% 이상의 하도급 참여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시는 보광종합건설(주)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업무협약으로 그치지 않고 공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지역 우수건설업체를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도 지역 전문건설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 현장 방문에 동행하며 지역업체 수주에 적극 협력해 왔다. 그 결과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선정을 이뤄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민·관 협력의 결실

로 평가하고,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에도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확대 뿐 아니라 지역 인력 고용과 지역 자재·장비 사용 확대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시공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사물주소·국가지점번호로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건물 없어도 신속한 대처 가능 오는 9월까지 순차 구축

앞으로 전주시민들은 산속 등산로나 저수지 주변에서도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부터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산악지역 등 비주거지역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생활 밀착형 공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소정보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시설물

이나 장소에 주소를 입히는 '사물주소 부여'와 주소 체계가 없는 비주거지역 '국가지점번호판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 전주 지역 전체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는 도심 내에서 시민 수요가 높은 6종의 시설물 총 531개소를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새롭게 부여한다.

세부 대상은 △무인민원발급기(49개소) △어린이보호 CCTV(180개소) △보호호수(20개소) △자동산장중정기(115개소) △옥외소화전(165개소) △파크골프장(2개소) 등이다.

시는 상반기 중 어린이보호 CCTV와 무

인민원발급기, 보호수 등 3종에 대한 주소 부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설물도 오는 9월까지 주소 부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시는 주소 체계가 없는 등산로와 산책로에 대해서는 국가지점번호판 총 16개(신규설치 14개, 멸실건 재설치 2개)를 상반기 내에 집중 확충하기로 했다.

주요 설치 지역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모악산 등산로(7개) △백색공원 일원(3개) △행천봉 등(6개)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국

가지점번호판을 지속해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심 시설물부터 산악 지역까지 전방위로 구축되는 사물주소와 국가지점번호 데이터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 또는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관리기관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비상 상황 시 시설물에 표기된 주소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신고하면, 긴급구조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두 바퀴차 안전모 미착용 특별단속

턱끈 미체결 행위까지 집중 단속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안전모 미착용 행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6주간 두바퀴차(이륜차·PM) 안전모 미착용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은 최근 도내에서 안전모 미착용 및 턱끈 미체결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 해이해지기 쉬운 안전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된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활동을 전개한다. 도심지역은 대학가, 학원가, 먹자골목, 아파트 단지 등 주요 이동 노선을 중

심으로, 농촌 지역은 고령 운전자의 이륜차 및 전기 자전거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강력히 계도하되 필요 시 단속을 병행 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모를 머리에도 없기만 하고 고정하지 않는 '턱끈 미체결 행위'를 집중 확인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지자체 및 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를 이룬차 소음과 불법계조 행위도 함께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여름철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벗는 행위는 도로 위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놓는 것과 같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안전모 착용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당선인, 의정활동 준비 본격화

당선인 상견례·의정활동 교육

전주시의회가 내달 1일 제13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 간 상견례와 의정활동 교육을 갖는다.

시의회는 23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제13대 의회 당선인 36명(초선 17명, 재선 이상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는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간부 소개와 당선의원 간 인사를 나누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당선인들은 앞으로 4년간 전주

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회는 상견례 후 당선인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은 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장 유재균 박사가 강사로 나서 △의원

이 숙지해야 할 기본사항과 요령 △의정활동 순차 방법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의정활동 교육은 제13대 전주시의회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에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노인돌봄'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폭염 대비 경로당·독거노인가정 방문

전주시는 23일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과 독거노인가정을 직접 찾아 위문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집중 시행하는 취약노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저소득·독거 노인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춰 △맞춤돌봄 생활지원사를 활용한 전화·방문 안부 확인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망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지역 자생단체와 통·반장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등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덕진구 안덕원로에 위치한 한신휴 경로당과 완산구의 독거노인가정을 차례로 방문해 이러한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특히 시는 향후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거동불편자 등 폭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생활지원사의 전화·방문 안전 확인을



전주시는 23일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과 독거노인가정을 직접 찾아 위문 방문을 실시했다 <사진=전주시>

강화하고, 폭염 단계에 따라 안전 확인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35개 동·노인맞춤돌봄기관·제가노인복지시설 등과 협력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취약 노인 지원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행정의 기본 역할"이라며 "현장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꼼꼼히 살피고, 어르신 한 분도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촘촘한 보호망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도민안전 치안 정책 강화 모색

도민 치안을 핵심 주제로 한 전북경찰청 '범죄예방 가능 워크숍'이 23일 개최됐다.

전북경찰청 '범죄예방 가능 워크숍' 자리에는 이재영 청장 그리고 도내 15개 경찰서 범죄예방 가능 과·계장급 50여 명이 참여해 전북경찰청 주요 치안 정책 등이 공유됐다. 이번 '범죄예방 가능 워크숍'을 준비한 전북경찰청은 "도민의 평온 일상 확보와 안전 치안 환경 조성 위한 워크숍을 통해 도민 범죄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 주요 치안정책에는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추진 △물놀이 안전관리 취약계층 보호 △범죄 불안 장소 환경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 제·개정 통한 범죄예방 예산 △인프라 확충 △자살·정신응급자에 대한 센터 구축 △합동대응팀 운영 △정확한 112신고 출동과 사건처리 △지역경찰 역량 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도 주요 정책 논의 대상이 됐다. /김영태 기자

전북소방 소리 대신 빛으로 화재 알린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청각·언어장애인 800세대를 대상으로 시각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듣기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연기를 감지하면 빛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맞춤형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연기감지기가 경보음으로 화재를 알리는 방식이라면, 시각경보형 연기감지기는 청각 정보에 의존하기 어려운 사람이 눈으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장치다. 특히 경보음을 듣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시각적 경보장치는 화재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생명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러한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주거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청각·언어장애인 거주 세대 가운데 화재안전 취약성이 높은 노후아파트 800세대를 우선 선정해 시각경보형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보급 사업은 지난 2월 24일 한국농어인협회 전북본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보

급 대상은 농어인협회에 등록된 수어 사용 청각장애인을 1순위로, 시군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을 2순위로 선정한다. 세대별 설치 일정은 문자 연락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예정이다.

감지기 설치하는 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장애 정도와 의사소통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군 농어인협회 관계자가 동행해 설치 과정 안내를 지원하고,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어가 포함된 사전 제작 영상을 활용해 감지기 작동 방법과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북소방본부는 감지기 작동 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설치 이후 유지관리 방법 등을 담은 교육 영상도 함께 제작했다. 영상에는 수어를 포함해 청각·언어장애인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방문 설치 과정에서 화재안전교육을 병행해 설치 이후에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요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 윤리청렴경영 “굳은 약속”

이사회서 공정한 의사결정 다짐... 임원 직무청렴 계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운영현황을 보고하며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및 ESG 윤리경영실천서약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공사 임원의 청렴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의지를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는 공공 및 국민 참여관제도에 따라 국민참여혁신단이 참석해 ESG 윤리경영실천 의지를 함께 나누고 국민 관점에서 기관 운영의 투명

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의미를 더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은 임원의 청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 금품·향응 수수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8개 청렴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이후에는 ESG 윤리경영실천서약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서약보드에 서명하며 윤리·청렴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남화영 사장은 “이번 행사는 윤리경영 경영의 실천 의지를 국민참여혁신단과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의사결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바탕으로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는 앞으로도 임원 직무청렴계약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ESG 경영과 연계한 윤리경영실천 체계를



전북농협인 발전에 북전주농협 “앞장”

제4기 여성대학 개강 실용 프로그램 접목

북전주농협 제4기 여성대학 개강식이 대성황리에 개최됐다.

북전주농협 제4기 여성대학은 지역여성 사회참여 확대 위한 과정 프로그램으로서 그 가치는 지역 내 매우 높은 평가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광 조합장은 22일 진행된 개강식에서 새로운 배움의 길에 들어선 여성 수강생들을 손수 응원하며 축하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여성대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실용 프로그램 접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4기 여성대학 교육생은 총 48명으로 이날 내·외빈들이 동참하며 교육생들의 첫걸음에 큰 박수를 보냈다.

특히 ‘여성대학’은 여성농업인들의 농업·농촌 가치 이해 그리고 다양한

농협사업 참여 나아가 지역사회 농업 발전 핵심 주역 성장 과정이 핵심이다.

이번 ‘여성대학’ 과정 속에서는 인문·교양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이론과 실습과정을 새롭게 접목해 학습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여성대학’ 과정을 통해 향후 북전주농협 파크골프대회 건강한 여가 스포츠 활동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우광 조합장은 “여성대학생들이 당당한 사회 주역 발판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북전주농협은 지역사회 여성 리더 양성에 책임 다한 노력을 다하며 농업발전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TP, 전북 바이오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BIOUSA 현장부스 운영

전북TP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 기간 중 KOREA Biohealth Hub 공동부스를 운영해 전북 바이오산업 경쟁력과 지역 우수 바이오기업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공동부스 운영은 BIO USA 현장 찾은 해외 바이오기업, 투자자, 연구기관, 병원·임상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북 바이오산업 생태계와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전북 바이오기업 6개사의 기술력과 협력 수요를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TP는 행사 기간 동안 KOREA Biohealth Hub 내 공동부스에서 전북 바이오기업 소개 카탈로그와 전북 투자유치·지역 소개 자료를 배포하고, 홍보영상물을 송출하며 방문객 상담을 진행했다. 또

해외 방문객의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기업별 기술·제품·협력 희망 분야를 설명하고, 투자, 공동연구, 기술이전, 임상협력, 유통, OEM·ODM 등 후속 연계 가능성을 발굴했다.

공동부스에는 전북 바이오기업인 ‘플라스마바이오, 아이메디텍, 메디사피엔스, 노보렉스, 바이엘티, 유스바이오글로브’ 6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AI 기반 신약개발 및 비임상 연구 자동화, 정밀진단, RNA 치료제, 재생의료·의료기기,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보유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소개했다.

전북TP는 특히 전북이 바이오 R&D, 비임상·임상, 제조, 치료까지 이어지는 전주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이를 통해 전북 바이오기업의 기술력과 해외 협력 가능성을 글로벌 시장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지역 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을 국제



<사진=전북테크노파크>
무대에서 알리는 데 주력했다.

공동부스 운영 기간에는 전북기업 카탈로그 배포, 기업별 관심 분야 매칭, 투자·협력 상담 수요 기록, 후속 미팅 연계 등이 진행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현장에서 확보한 상담 내용과 명함, 관심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귀국 후 기업별 후속 연락과 미팅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ESG 경영 인식개선 교육’

미래 경쟁력 강화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23일 지역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인식 개선 교육을 개최했다.

김 회장의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에는 김재훈 ESG 전문 강사로 나와, ESG 경영의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기업의 대응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기업 임직원들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ESG 규제 대응과 실질적인 평가지표 관리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ESG 경영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영 패러다임을 정확히 읽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023년 전북지역 공급망 ESG 통합지원센터로 선정된 이후 지역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ESG 교육 및 평가·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청년 지원부터 AI 혁신까지 국민체감 연금서비스 만들겠다”

김성주 이사장 청사진 제시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요사업 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취임 이후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준비, 치매 공공신탁,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각 사업 담당부장 브리핑

에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라며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되도록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개선과 대상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전환’ 위한 공공기관 최초 카카오휘 인공지능 기

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가 공유했다.

김 이사장은 현장에서 나온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근 국내 주시 비중 조정과 리밸런싱 재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수익률 제고와 기금 규모 확대를 통해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증시 여건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수익 제고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 국가의 지원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국민의 삶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연금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전북중소기업인’ 대회

지역경제발전 노고 인정 “든든한 버팀목 수행”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승중)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과 공동으로 23일 ‘2026년 전북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전북 중소기업인대회’는 올해 27회째로써 △일자리 △수출 △사회공헌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계 최대규모 행사다.

행사에는 장상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공영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김병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회장 등 비롯한 경제단체장, 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인 1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전북중소기업인들의 지역경제발전 노고에 따른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우수단체 등 총 46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특히 행사를 통해 △유한책임회사 엔에이치네트웍스 이근신 대표이사(우)성원엘리베이터 양혜정 대표이사가 대통령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한책임회사 엔에이치네트웍스 이근신 대표이사는 2001년 설립 이후 통합재난관제용 CCTV 영상관계 시스템 개발부터 시공, 유지보수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가 재난망 및 스마트시티 구축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일 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성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성원엘리베이터 양혜정 대표이사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승강기 제조



<사진=중기중앙회 전북본부>
업체를 이끌며, 지속적인 나눔과 후원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성장하는 모범적인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병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이 전북 경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역 6월 소비자 심리지수 전월 대비 ‘상승’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6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를 23일 발표했다.

6월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106.0)보다 2.0p 오른 108.0 상승세를 보였다. 소비자동향지수(CSI) 주요지수 중 소비자출전망(109→109)은 전월과 동일하고 생활형편전망(98→96)은 전월대비 감소했다.

반면 현재생활형편(92→95) 증가, 가계수입전망(99→100) 증가, 현재경기판단(87→91) 증가, 향후경기전망(94→102)은 상승세로 집계됐다.

여타 지수로는 가계 부채 전망(101→101) 전월과 동일, 취업기회전망(89→94) 증가, 금리수준전망(113→127) 증가, 가계저축전망(97→98) 증가, 주택가격전망(114→122) 증가, 임금수준전망(123→125) 역시 전월대비 상승세로 확인됐다. 한편 전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6로 전월(106.1)대비 0.5p 상승으로 나타났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예치금리 최대 4% 우대형통장 출시

전북은행이 예치금 고객들의 유리한 금리 적용 혜택이 따르는 맞춤형 파킹통장 ‘씨드모아 소액우대 통장’과 ‘씨드모아 고액우대 통장’을 출시했다.

이번 출시 신상품 2종은 개인고객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고객의 자금 규모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두 상품은 입출금 통장임에도 가입 후 3개월간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4.0% 금리를 제공하고 기간 종료 후에도 연 1.8%~2.0%의 기본 금리를 제공해 단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고객은 물론 목돈을 예치하는 고객까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씨드모아 소액우대 통장은 소액 자산을 집중 운용하는 고객이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5천만원 이하 금액에 기본금리 연 2.0%, 5천만원 초과 금액에는 연 1.8%를 제공한다.

또 씨드모아 고액우대 통장은 고액 자산을 유지하는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잔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금리 연 2.0%,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연 1.8%를 제공한다.

관련해 우대금리 조건은 신상품 2종



<사진=전북은행>
모두 동일하게 △마케팅 동의 연 0.2% △전북은행 첫 거래 고객 연 0.8% △보너스금리 연 1.0%가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가입 후 3개월간 제공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자금 규모에 따라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씨드모아 신상품 2종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 혁신을 통해 합리적인 자산 운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상품 2종은 ‘속뱅크’ 및 ‘전북은행 모바일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속뱅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천호성 인수위 '교육혁신 선도지역' 전담 사업단 신설

**부교육감 단장 TF 구성
8월 말까지 교육부에
사업 신청... 부작용
우려해 2곳만 시범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의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사업' 유지를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사업단을 구성한다. 천호성 인수위는 23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현안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정재균 인수위 대변인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소규모 학교 통합을 연계하기 위해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며 "전북교육청에 사업단을 신설해 일선 시·군의 신청을 취합하고, 사업 계획을 검증해 오는 8월 말까지 교육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기존 교육 발전 특구를 개편해 지정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은 최대 5년간 연 20억 원을 지원받는다. 전담 도입을 예고했던 '교육장 지역

추천제'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130명(참여 인원 1,497명)이 추천을 받았으나, 당초 목적했던 지역 교육 공동체 추천보다는 개인적 진분에 의한 추천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수위는 투명성 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추천이 접수된 2곳에서만 해당 제도를 우선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특별감찰위원회' 신설 논의도 본격화했다. 정 대변인은 "인수위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위원

회 신설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기존 감사관실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조직 비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구성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완산학원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이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징계자 재임용 및 무자격자 임명 실태를 집중 조사하며,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100% 공개를 강제해 이사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한다. /최성민 기자



<사진=군산교육지원청>

군산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성황'

2,000여 명 학생들이 출전
20,000여 명 학생들이 출전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군산동고등학교 경기장 외 8개 구장에서 관내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를 배우고 성장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인 경기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신체활동의 기회를 넓혀주고,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군산 관내 초·중·고등학교 51개교에서 총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출전해 역대급 규모와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다. 대회 경기 종목은 관내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훈련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로 구성됐다. 또한 경기장 곳곳에서는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아름다운 스포츠맨십이 연출돼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닌,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연대감을 배우고 성장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인 경기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이성이 교육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을 배우고, 건강하게 땀 흘리며 교류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1인 1스포츠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학생들이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바른 인성을 함양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 '시도대항 전국족구대회' 성료

**전국서 1500여명 참가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어**

김제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대한민국족구협회(회장 이대재)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족구협회(회장 성명기)와 김제시족구협회(회장 박천영)가 주관한 '제13회 대한체육회장기 시도대항 전국족구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J1(남·여)부를 비롯한 13개 부문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160개 팀, 1,500여명의 선수 및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제시민운동장과 족구전용구장에서 열렸다. 지난 21일 개최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박지원 국회의원, 이정자 김제시의회 부의장, 이대재 대한민국족구협회장과 각 시도 족구협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를 더욱 빛냈다. 또한, 같은 기간 김제실내체육관에서는 2026년 전북지역 태권도승품단 심사가 열려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등 2,000여명이 김제를 방문했다. 이틀간의 대회 기간동안 선수단 등은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며 지역 상권 매출 증가 등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 시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종주국 스포츠인 족구가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승격되는 뜻깊은 결실을 맺은 건 모든 족구인들의 노력으로 이뤄 낸 값진 성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익산고 검도부 정희겸, 전국대회 우승

개인전 우승컵 차지
익산고 검도부 정희겸(2년)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경복 구미에서 열린 '제9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정희겸이 개인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전국 32개교에서 약 130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 대회에서 정희겸은 128강부터 맹활약하며 64강과 32강, 16강, 준결승까지 모두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순항했다. 준결승에서 만난 마산가포고 선수를 2대1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한 그는 성동고 선수를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 마침내 최정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전북검도회 관계자는 "큰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뽐낸 정희겸군이 대견스럽다"며 "전북 검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정읍시, 27일 '와락콘서트' 개최

청소년·시민 누구나 무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수련관 녹두홀에서 지역 청소년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문화 공연인 '제26회 와락콘서트'를 개최한다. 와락콘서트는 대중이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다 같이 즐기도록 마련한 자리다. 음악을 매개로 세대 간 소통을 돕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행사 역시 지역 사회 구성원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은 △심어롱 해설이 있는 고전 클래식 감상(베토벤 '에그먼트 서곡') △퀴즈야! 함께 놀자 △초대 손님(게스트)과 함께 등 다채로운 순서로 꾸러진다. 특히 연주단 '해바라기 오카리나'가 무대에 올라 소리의 풍성함을 더한다. 이들은 '물놀이', '도레미 송', '딱따구리 폴카', '화초장 타령' 등 여러 곡을 연주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계획이다. 최영관 관장은 "와락콘서트는 청소년과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노래하고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열린 공연"이라며 "많은 분이 찾아와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사진=정읍시>

하안양옥집 '조선시대 선비의 유람길' 조명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복합문화공간 하안양옥집에서 지난 5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기획전시 '국립공원 예술로 피어나다: 유람의 기록, 산을 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시는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협력해 기획됐으며, 도내 자연·역사 자원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긴 유람록을 바탕으로 전북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이자 지난 인문학적·경관적 가치를 현대 예술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조명한다. 전시에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예술인 8인이 참여해, 옛 유람기 속 전통적 시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일상적이고 친근한 시선을 담아낸 스케치, 전북의 대자연을 담아낸 영상과 사진, 전통 기법과 현대적 감각을 연결한 수묵화 등 다채로운 시각 예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개막식은 전시 첫날인 지난 5일 하안양옥집에서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국립공원공단의 주요 관계자들을 비롯한 전시 참여 예술인이 함께 자리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6월에는 전시와 관련해 관람객들이 추가로 즐길 수 있는 연계 문화행사가 주말마다 펼쳐진다. 전시 관련 도슨트 전시해설은 주말마다 상시 운영되며, 6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주말에는 △국립공원 굿즈 팝업스토어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악 공연 및 유람록 강연 △현대 판 유람록 토크콘서트도 진행돼 방문객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옛 선비들의 유람길을 현대 작가의 시선으로 다시 걸으며, 지역 자원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시 및 연계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공식 SNS 또는 예술회관운영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정철 기자

지역경제 살리자

소비자 지역을 살립니다

동네가게 이용하기

전통시장 이용하기

지역상품 구매하기

익산시, 직원 역량 높여 창업 지원 기반 강화

익산시는 23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우수기업 발굴 창업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기업의 국가 창업지원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창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창업 이해도와 기업 발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창업·기업지원 관련 부서 직원과 창업에 관심 있는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민간투자사인 ㈜아이디퍼터너스 김수환 대표와 ㈜크립톤 양경준 대표가 맡아 창업의 기본 개념부터 정부 연계형 창업지원제도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창업의 이해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 △기술창업과 소상공인 창업의 차이 등 창업 전반에 대한 기초 내용을 다뤘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창업기업의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놀이 맞춤 상담 '꼬마야 놀자' 추진

정읍시장에인종합복식관이 지역 기업 '꼬마도래'의 후원을 받아 지역 내 취약 아동 4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놀이 중재 자문(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꼬마야 놀자'로 이름 붙여진 이번 사업은 경제적·환경적 요인으로 발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발굴해 돕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물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다각도로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의 핵심은 전문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1대1 맞춤형 상담(컨설팅)이다. 담당 치료사가 아동의 발달 수준을 정밀하게 평가해 가장 알맞은 놀이 환경을 설계한다. 아울러 보호자가 집 안에서 아이와 올바르게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도 지도한다.

복지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후원과 전문 치료 체계가 만나 아동 발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

군산시는 23일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아동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부서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아동친화업소 지정·운영' 방안과 관련해 아동 동반 이용객을 환영하고 배려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인증 기준, 참여업소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공공시설 내 아동 환대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해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아동과 보호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공간 구성과 운영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신규 공원이내 관광·문화공간 조성 시 아동친화 요소 반영 방안과 관련해, 시설을 처음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아동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체험·휴식 공간 등을 반영하는 방안과 사업별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군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아동의 권리와 관점이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전북지사 인수위에 사업 건의

새만금 배후산업 및 AI바이오 등 9건 상생발전 전략 제안

정읍시가 2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새만금 배후 첨단산업 지원단지 조성을 포함한 9건의 미래성장 전략사업을 건의하며 지역 현안의 도정 반영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인수위원회 활동 시기가 도정 공약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설계하는 핵심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정읍의 주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시는 전북도정 공약과 정읍시 주요 현안의 연계 가능성, 사업 통합과 고도화 방향, 중장기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청년정주, 농업, 관광,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을 아우르는 전북자치도와 정읍시의 미래성장 전략사업을 마련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총 9건이다. 구체적인 △새만금 배후 첨단산업 지원단지 조성 △전북 바이오헬스 첨단산업 복합

단지(클러스터)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전북 스마트농업 혁신 복합단지 구축이 포함됐다.

아울러 △전북 내장호 사계절 머물쉼터 △전북 생활체육 스포츠파크 △전북 서남권 키즈라이프 문화플랫폼 △전북 금융 AI데이터센터 복합 클러스터 △청년·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등을 함께 제안했다.

시는 새만금 배후 첨단산업 지원단지와 금융 AI 자료센터 복합단지를 통해 새만금과 정읍을 잇는 전북 서남권 산업벨트 조성 방향을 제시했다. 새만금 투자 효과를 협력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기반 확충으로 연결하고, AI와 데이터, 바이오 산업이 이어지는 지역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바이오헬스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동물용 의약품 규제자유특구, AI 미생물 거점도시, 천연물 소재 표준화, 첨단 바이오 및 방사성 의약품 산업화 기반을 묶어내는 사업이다. 연구개발 성과가 실증과 생산,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청년·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사업도 건의서에 담겼다. 생명공학, 농생명, 제약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청년 연구

인력과 전문인력 유입에 대비해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활력을 되찾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스마트 농업을 통한 농업의 미래 산업화, 동진강과 내장호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생활체육 시설과 어린이·가족 문화시설 조성도 제안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인수위원회는 물론 전북자치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업별 정책 반영 논리를 보강하고, 국비와 도비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 추진 우선순위를 정한 뒤 도정 중점사업과 국가예산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학수 시장은 "인수위원회 활동은 새로운 도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읍의 미래성장 전략사업이 전북도정의 핵심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더욱 보완하고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자율주행 '마롱e버스' 시승식

안정성·편의성 점검 내달 시민 대상 시범운행

익산 시내 도로 위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친환경 자율주행 버스가 달리는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익산시는 23일 자율주행 기반의 친환경 대중교통 서비스인 '마롱e버스'의 시승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시승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출원 기자단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율주행 기술 시연과 함께 실제 운행 노선 구간을 직접 주행하며 차량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193억 6,500만 원을 투입해 호남 대중교통의 관문인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민선 8기 핵심 프로젝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익산시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시는 기본설계와 플랫폼 구축 용역, 차량 제작, 실증 등 고도의 안전 검증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쳤으며 2028년까지 2개 노선(10.7km)을 단계별로 운영하게 된다.

내달 중 시민을 대상으로 개시되는 첫 시범운영은 청년들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1개 노선에서 이뤄진다. 평화동 익산외고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익산역을 지나 원광대학교에 다다른 뒤, 다시 역순으로 터미널로 돌아오는 코스다.

익산시 자율주행 1호인 마롱e버스는 전기 저상 좌석형 모델로, 자율주행 전

문 기업인 라이드플러스가 기술 공급 및 차량 운영을 맡아 정해진 노선을 따라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시는 돌발적인 도로 상황에 완벽히 대응하기 위해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문 안전 요원을 상시 탑승시킬 방침이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는 시민들의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전액 무상으로 운행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마롱e버스의 힘찬 첫걸음은 익산시가 미래 모빌리티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정식 서비스 개시 전까지 도로 위 안전 검증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군산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맞손

새만금 블루 바이오 연구 클러스터 구축 협약 체결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새만금 수산식품단지를 중심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기술사업화 고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군산시는 23일 군산대학교 이노테크 홀에서 군산시 수산산업과,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 해양·수산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블루 바이오 R&D 연구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산·학·연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해양자원 기반 블루바이오 연구클러스터 조성 및 지속가능한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기능성 해양소재 발굴과 실증·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기능성 식품, 메디푸드, 더미코스메틱, 바이오소재 및 환경기술 분야 성과 창출 지원 등이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연구클러스터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진행됐다. 유현희 교수는 '연구클

러스터 1차연도 성과 및 운영 현황'을 발표했으며, 이인아 교수는 '공동연구 및 시제품 제작 연계 방안'을 주제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RISE사업단은 성과지표 운영 방향과 성과관리 체계를 공유하며 연구성과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박동래 수산산업과장은 "지·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연구 협력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직무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

최우수 주택과·영등2동 등 총 6개 부서 선정

익산시가 우수 행정 성과를 낸 부서를 선정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익산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BSC 직무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수상 부서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성과와 장출을 건의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6개

부서는 최우수 주택과·영등2동, 우수 노인복지과·송학동, 장려 산림과·함라면이다.

이번 직무성과평가는 총 83개 부서를 대상으로 470개 성과지표의 달성도와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체평가단과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민선8기 시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시정에서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를 더했다.

시는 앞으로도 전략목표와 연계한

핵심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성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해 책임행정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민선8기 동안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공직자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청 시민갤러리, 예술로 물들다

지역 작가 작품 전시

익산시청 시민갤러리가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으로 채워지며 시민들에게 일상 속 작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익산시는 시청 지하 1층 시민갤러리에서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익산 미술인 초대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달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와 협력해 마련됐으며, 지역작가들의 회화·서예·공예 등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세계를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시민갤러리는 시청 지하 1층에 조성된 열린 전시공간으로, 시민들이 시청을 오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고유가 지원금 신청 마감 임박"

내달 3일까지 신청

군산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급 신청 마감일이 내달 3일로 다가옴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2차 지급은 지난 3월 30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중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차에서 우선 지급된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가족과 연관이 끊겨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찾아가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사회적 단절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산시 전체 대상자 201,849명 중 196,727명이 신청(6월 18일 기준)해 약 97.5%가 신청을 완료했으나, 아직 5,122명이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미신청자에게 우편 발송을 하거나 이·통장을 통해 전달하는 등 한 명의 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스카프스 앱 및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카드 연계 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마감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지원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홀몸 어르신 고독사 예방 '총력'

12월까지 10가구 매월 방문

정읍시 시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2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사회적으로 고립된 홀몸 어르신 10가구를 매월 직접 방문해 살피는 '독거노인 안부 잇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가족과 연관이 끊겨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찾아가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사회적 단절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회 일원,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 총 12명이 현장 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각 가정을 찾아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점검한다. 광경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홀로 외롭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합심해 정이 넘치고 따뜻한 지역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군산경찰서>

군산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는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관내 초등학교 대상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안전확보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했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 군산교육지원청, 군산시청, 모범안전자회와 함께 합동으로 약 60여명이 참여해 관련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산경찰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 및 협력단체 배치로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무면허 PM운전 등 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설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온라인 및 협력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홍보·교육에 만전을 다 하고 있다.

캠페인을 실시한 신흥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활동이 강화되고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한 것에 대해 고마워 하며 이런 캠페인이 자주 있기를 바란다는 부탁도 덧붙였다.

임정빈 군산경찰서장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날 때에는 내 아이가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부안군, 글로벌 지질 관광 거점 도약

서해안 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건립 본격화... 내년 완공

부안군은 지역 자연유산을 활용해 글로벌 생태관광 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채석장, 적벽강, 위도 대월습곡 등 세계적 수준의 지질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교육·체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은 이번 센터 건립을 통해 이 같은 인프라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부안군 변산반도 격포리 산 47-7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1만 7655㎡, 연면적 2853㎡(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군은 건축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조감도 <사진=부안군>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진행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평가에서도 국제 평가위원들이 센터 건립 취지와 방향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평가단은 센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4년 뒤 진행될 차기 재검증 시점에는 이 공간이 지질공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주민 상생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롭게 조성될 센터는 단순 안내 기능을 넘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지질 체험관, 전문 해설사 양성 공간,

주민 참여형 로컬 마켓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생태 공간으로 구축된다.

군은 이를 통해 국내외 탐방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센터는 부안의 지질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홍보하고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의적으로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남은 행정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 전북 서해안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 농특산물, 전국 애슬리서 만난다”

㈜이랜드이츠와 농산물 유통 활성화업무협약 체결

전북 고창군이 국내 대표 외식기업 ㈜이랜드이츠(대표 황성윤)와 손잡고 고창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2일) 오후 군청1회의실에서 ㈜이랜드이츠와 ‘고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랜드이츠는 애슐리, 자연별곡, 로온, 피자몰 등 14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국내 대표 외식기업이다. 특히 전국 124개 매장을 운영 중인 애슐리는 국내 대표 뷔페형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소비자들로

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협약은 고창에서 생산된 멜론, 고구마, 팥 등 농산물을 활용한 애슐리 시즌 메뉴 개발과 공동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고창 명품 농산물의 원물 공급은 물론, 특화메뉴를 전국 애슬리 매장에 출시해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하고 고창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은 고창 우수한 농산물과 민간 기업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다”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자봉센터, 전북희망여름 캠페인 실시

김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윤권)는 지난 22일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희망여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고 김제시자원봉사센터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여름나기 키트 140세트를 마련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김윤권 이사장은 “해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무더위 속에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바쁜 일정과 더운 날씨에도 기꺼이 동참해 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작은 정성과 마음이 이웃들에게 시달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사회복지과 복분자블루베리 수확 일손돕기

고창군 사회복지과(과장 오수목)가 지난 22~23일 고령 영세농가를 찾아 복분자와 블루베리 수확 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지과는 1차로 무장면 복분자 농가를 찾아 무더위 속에서 복분자 수확을 도우며 팥방울을 흘렸다. 이어 다음날에는 블루베리 수확 작업을 도우며 적기 수확이 시급한 농가에 실질적인 힘을 보탤 예정이다.

오수목 사회복지과장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이번 일손 돕기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나눔과 돕기 문화가 지역 사회 전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온누리상품권 사용권역 확대

남북로 일대 신규 지정 상권 활성화 기대

김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 자생력 회복과 골목상권 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남북로 182 일대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를 김제시 제6호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남북로 구역이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사자탑, 동서로 상점가 등과 맞물려 구산사거리부터 사자탑까지 이어지는 전통시장 및 남북로 일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

용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 증진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형성돼 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하나의 거대 상권으로 연결됨에 따라 상권 간 연계 소비가 확대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제6호로 지정된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는 안경점, 의류, 뷰티 등 서민 밀착형 도소매 업종 등이 촘촘하게 밀집한 중심 가로다. 총 4,322㎡ 영업면적 규모에 43개 점포가 참여했으며, 전체 상인의 63%의 참여와 협력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부안군은 군민의 안전 확보와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홍보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이 되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이다.

해당 구역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나 노면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언제든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요건에 맞춰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부안군>



<사진=부안군>

군 관계자는 “잠깐의 편의를 위한 주정차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통해 안전한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부안군, 민선9기 출범 준비태세 강화

정부정책 연계 사업 발굴, 공정한 업무수행 강조

부안군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핵심사업 발굴,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업무 수행 등 균형 전방의 준비 태세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2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5국3특 국가균형성장, AI·첨단기술 기반 산업 육성, 지역별 전략산업 발굴 등 정부의 정책기조가 놓여준기반소속 시범사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임지 규제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을 이어지고 있다”며 “민선9기 출범을 앞둔 부안군도 이러한 흐름을 균형방향과 주요 현안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특히 정부정책 방향과 연계 가능한 사업들이 민선 9기 핵심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으며 각 부서에서는 소관 사업 중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대응 등으로 연계 가능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획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정부정책 흐름과 부안군 주요 현안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민선9기 균형방향과 핵심사업 추진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 군수는 민선 8기 공정을 마무리하고 민선 9기의 본격 출범에 앞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새만금도시과는 시설물 일제점검 기간을 정해 부서별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후속 조치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계획이다.

권 군수는 “모든 행정업무는 관계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돼야 하며, 이는 군민 신뢰 확보를 위한 공직자의 기본 책무”라며 “자의적 판단이나 관행적 업무처리로 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계약, 민원 처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일수록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부안=은봉기 기자

‘고창군민 AI디지털 배움교육’ 운영

고창군이 누구나 쉽게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고창군민 AI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은 내달 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고창군 여성회관 정보화교육장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이 운영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AI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는다.

주요 교육 과정은 △고창군민을 위한 AI와 함께하는 스마트라이프 △스마트폰 AI 콘텐츠 제작 과정 △AI로 전자책 쓰기 및 스마트폰 사진 포토북 만들기 과정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 과정 등 4개 과정이다.

교육 신청은 사전에 배움터 누리집 회원가입을 한 후, 디지털 배움터 사업단 자체 제작 구글 폼을 통해 가능하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용지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준공

김제시는 23일 용지면 와룡리 일원의 교통 안전성을 높이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수하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이달 최종 준공했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인 용지면 와룡리 산 72-6번지 일원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고 신호대기로 인한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던 구간이다.

이에 김제시는 지난 2024년 11월, 해당구간을 다각도로 검토해 2025년 회전교차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총 사업비 6억 6천만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소통중심의 행정을 펼쳤으며 철저한 실시설계 후 원만한 보상단계를 거쳐 안전하고 신속한 공사 끝에 준공의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수하사거리 회전교차로 도입으로 통행 차량의 자연스러운 감속을 유도해 교차로 내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이 줄어들어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의 주행환경이 한결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적극행정 실천 의지

고창군과 심덕섭 고창군수가 ‘제23회 고창 북부자와 수박축제’가 열린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행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부스에선 △청렴 홍보부스 운영 △청렴 실천 다짐 인종 포토존 설치 △차제 제작한 청렴 부채 배부 등이 진행됐다.

축제 방문객은 물론 행사에 참여한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고창군 반부패 청렴 정책 홍보 및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특히, ‘찾아가는 부정부패 신고 및 고충 민원 상담센터’가 운영돼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갑질 행태, 소극적인 업무 처리 경험에 대한 접수와 상담을 진행했다.

앞서 고창군은 올해 ‘군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고창 실현’을 목표로 각종 부패관행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직사회 경쟁력은 청렴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적극적이고 진철한 대군민 행정 실천에서 나온다”며 “군민 여러분 또한 더욱 청렴한 고창군 만들기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은봉기 기자

완주형 청년농 육성 정책 빛났다

국민팜엑스포서 최우수 '영예' 귀농귀촌 정착지원 성과 인정 청년 귀농 장기교육 호평

완주군이 청년 농업인 육성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2026 국민팜 엑스포'에서 최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 참가해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전개하고 귀농귀촌 정착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박람회는 귀농과 귀어, 귀촌을

비롯해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농업·농어촌 박람회로 치러졌다.

이 자리에서 완주군은 전국귀농귀촌 중앙회와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소별 위치에 직면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완주형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 귀농 장기 교육 등을 폭넓게 소개했다.

특히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귀농귀촌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 귀농인의 집 및 주거 지원, 로컬푸드 기반 소득 창출 모델 등 정착 단계별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안내해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군은 전국귀농귀촌중앙회와 공동부



<사진=완주군>

스를 운영하며 소별 위치에 놓인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완주형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귀농 장기교육 등을 소개하고, 도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사진=완주군>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용진읍 신청사 개청

'완주 관문' 용진초입에 새 동지 옛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설립 1년 7개월 만에 용진읍 초입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단은 군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의 관문에 위치한 옛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해 새 청사를 조성했다.

면적 854㎡ 규모의 공단 신청사는 3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을 비롯한 회의실, 종량제봉투 창고 등을 갖춰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군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23일 열린 개청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

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사회단체장, 용진 지역 리더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익산도시관리공단, 전북개발공사,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들 등 그동안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의 성장과 함께 해온 기관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희수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청사 이전은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성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더욱 신뢰받는 지역의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친절행정 역량 제고 군청 직원 상반기 교육 진행

순창군이 군민 중심의 친절행정 실현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2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심리 이해를 통한 친절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를 주제로 2026년 상반기 친절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 현장에서 군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공직자들의 친절 마인드를 함양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교육조아인센터 대표인 이정화 CS강사가 맡아 진행되며, 고객 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절 응대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친절의 필요성과 고객 만족의 중요성을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객과 1cm 더 가까워지기'를 주제로 공직자의 호감 가는 태도와 소통 방법, 긍정적인 민원 응대 전략 등을 공유하며 군민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은 군민을 향한 공직자의 친절한 마음가짐"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을 실천해 보다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3박4일 귀농체험학교 참가자 모집

참가비 없이 24명·30일까지 영농교육·농장견학 등 진행

순창군은 도시민과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과 영농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순창군 귀농체험학교'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귀농체험학교는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순창군의 정주 여건과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3

박 4일간 순창 싼랜드와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장 등 순창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24명 이내이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참가비 없이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인 '그린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교육과정은 △순창군 귀농귀촌 정책 및 정착 지원제도 안내 △토양관리 및 기초영농 교육 △선배 귀농인의 정착 사례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귀농·귀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와 영농 기초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농업·산업 현장 견학 과정도 함께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농업기술센터 주

요 시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을 둘러보며 순창군의 농업 기반시설과 대표 산업을 살펴보고, △블루베리 농장 △설리복숭아 농장 △치유농업 농장 등 지역 농장을 방문해 실제 영농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강천산 관광지 탐방과 강천힐링스과 체험 등을 통해 순창군의 자연 환경과 생활 여건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들이 순창의 농업환경과 정주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성공적인 정착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주택가민원다발지역 집중 점검 7~8월 특별단속 과태료 부과

남원시는 주택밀집 지역 및 도로변 등에 불법 주기(駐機)한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과 8월 2개월간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 주차가 주변 도로와 공터 등에 장기간 주차되면서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과 직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공동주택과 공원 주변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하고, 최초 적발된 건설기계에는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반복 적발 시에는 횡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남원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지게차, 로더,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3,038대이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장류축제 해외 관광객 유치 총력

외국 공무원 연수생 대상 홍보 장문화 체험·관광자원 소개

순창군이 2026년 예비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제21회 순창장류축제의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대상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서 교육 중인 지방정부 국제교류 지역 5개국 공무원 연수생 13명을 대상으로 순창장류축제 홍보를 실시했다.

몽골,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5개국의 사무관·주무관으로 구성된 연수생들은 '전통역사 자원화 및 지역 6차산업화 정책 현장'을 주제로 순창군을 방문해 발효산업 정

책 현장 견학과 장(醬)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순창의 대표 발효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순창군과 발효관광재단은 이날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순창의 발효산업 육성정책을 소개하고, 강천산군립공원 등 주요 관광자원과 함께 제21회 순창장류축제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특히,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며 축제 기간 순창 방문과 각종 관광객 유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교류 채널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글로벌 축제 기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소상공인연합회 '가족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회원·가족 180여명 참여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회원 및 가족 등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제3회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상호 간 소통과 친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육경기와 화합행사,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강상남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소상공인 여러분이 있어 남원의 경제가 더욱 활력을 얻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회원 간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양충모, 이원택과 회동...취임 전 '광폭행보'

국립의전원·경찰학교 협력 요청 '전북 동부권 발전 견인차 될 것'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이 7월 취임을 앞두고 시정 현안 중점사업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양 당선인은 지난 16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2027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안 반영에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23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전북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민선 9기 시정 현안 중점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협조와 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양 당선인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섬진강유역환경청 남원 유치 등 대형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개발



<사진=남원시>

및 실증연계 핵심거점 구축 사업, K-뷰티 수출거점 조성사업 등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의 남원시 공약사업에 대한 정책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지원과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양 당선인이 요구한 남원시 시정현안 중점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답

했다. 양 당선인은 "남원시 민선 9기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제2중앙 경찰학교 유치 등 획기적인 남원 발전 르네상스를 열기 위한 국가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남원발전과 더불어 전북 동부권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인재육성재단, 교육 현장 점검 나선다

초교 18곳·완주학당 6곳 대상 학생·학부모 의견 직접 수렴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유희태)이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에 나선다.

재단은 7월까지 완주군 관내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개교와 완주학당 6개소를 대상으로 '중국어 방과후 지원사업' 및 '다중기능개발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재단 관계자가 직접 교육 현장을 방문해 수업 운영 전반을 살피고,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 강사 복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개선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단은 수업이 실제로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수업 참여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반응을 관찰하고, 교육 수혜자들의 관심 분야와 학습 욕구를 파악해 향후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 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어 방과후 지원사업에는 관내 초·중학생 48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완주학당 다중기능개발사업에는 바둑, 창의과학, 코딩, 수학, 영어 분야 전문 강사 9명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총 192명의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기주

도적 학습 역량과 창의융합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재단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 수혜자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교육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성과를 분석해 향후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교육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미래 역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장수군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와 경계 설정 결과를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지구는 장수군 장계면 장계3·4·5·6 지구로 총 1,571필지, 50만5,873㎡ 규모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와 지적확정예정조서 열람 방법, 향후 경계결정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토지소유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개별 상담도 함께 진행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검토 절차를 거친 뒤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제19회 무주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성료

무주군은 23일 무주예체문화관에서 “제19회 무주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학습단체 간 화합을 도모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한국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에서 주관했으며, 한국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회장 유종식),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회장 윤정순), 한국4-H무주군본부(회장 이종인), 무주군4-H연합회(회장 이정훈) 등 4개 단체의 회원 3백5십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에는 올해 홈페이지 과제교육 과정에서 제작한 ‘파자마’와 ‘무릎 덮개’, ‘얇치 마’를 비롯해 블루베리, 복분자, 딸기, 체리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양갱’ 등의 전시·판매장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 김옥기 회원,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정경자 회원, 한국4-H무주군본부 이근봉 회원, 무주군4-H연합회 이현주 회원이 무주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군수 공로패를 받았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유공자 표창

진안군은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모범부부 12쌍에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상자는 각 읍·면장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는 △진안읍 김기선·유공래 부부 △진안읍 김석봉·홍인숙 부부 △용담면 김광배·정계자 부부 △안천면 양현주·허경숙 부부 △동향면 김석기·강현숙 부부 △상전면 허창식·박미옥 부부 △백운면 박정표·전정인 부부 △성수면 김병근·윤화자 부부 △마령면 문용주·레티대 부부 △부귀면 김호석·정승자 부부 △정전면 고희근·전평순 부부 △주천면 송명수·마선옥 부부 등이다.

이들은 활발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온 것은 물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진안=전필환 기자

무주군 ‘경락품새 교육’ 시작

2026 무주 태린이 페스타 어른신 태권도 프로그램 문체부 지원 공모사업 선정

“2026 무주 태린이문화 페스타 경락품새 교육(이하 경락품새 교육)”이 23일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락품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6 무주 태린이문화 페스타”의 첫 프로그램으로, 세계어린이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무주군과 무주군태권도협회가 후원한다.

오는 8월 27일까지 9주간 주 2회(화, 목 / 오전 10:00~11:00, 오후 15:00~16:00) 무주국민체육센터와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회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락품새는 태권도 품새 동작에 스킨라크와 △자세 관리, △균형 운동 요소를 접목한 어른신 맞춤형 태권도 프로그램으로, 무리한 동작보다는 어른신들이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저강도 동작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신체 균형 유지와 건강한 여가 활동을 돕는 데 초점을



2026 무주 태린이문화 페스타 경락품새 교육 업무협력 협약식 <사진=무주군>

맞췄다.

무엇보다 경락품새 참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 전·후 다양한 건강검사를 병행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무주군보건의료원(원장 홍진표)과 무주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용),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 무주군태권도협회(회장 이도우), 세계어린이태권도연맹(총재 이상기) 등 5개 기관이 지

난 23일 업무 협력 협약을 맺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참여 어른신을 대상으로 체성분 검사와 치매, 우울증을 검사하고, 세계어린이태권도연맹은 자세 검사와 관절 움직임 검사를 진행해 교육 전후 신체·정서 변화와 참여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외 기관들도 참여자 모집을 비롯해 교육 운영, 안전관리, 사후관리 등에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N딸기, 44억 역대 최고 매출

GAP 인증체계적 행정지원 결실 귀농 연계 생산기반 확대

임실군 대표 농특산물인 임실N딸기가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며 지역농가의 고소득 효과 품목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군은 지난 23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아펜젤홀에서 김경보 공선회장을 비롯한 공선위원회와 관계기관, 농협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 딸기 공선회 결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우수 공선위원과 신인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하며 임실 딸기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임실 딸기 공선회는 지난 2012년 10농가에도 미치지 못했던 작은 조직에서 출발해 현재 29개 농가가 참여하는

대표 생산조직으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고인 4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공동선별·공동출하 체계의 경쟁력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임실은 해발 250~300m의 중산간 지형과 큰 일교차, 깨끗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당도와 식감이 뛰어난 딸기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자연환경에 더해 임실N딸기는 전량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기반으로 생산부터 선별,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선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선별·공동출하 시스템을 구축해 균일한 품질과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대형 유통업체와 소비자들로부터 ‘품질 편차가 적고 끝까지 신선한 딸기’라는 호평을 받으며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은 이러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육묘 지원과 농자재 지원, 공동선별 및 포장재 지원, GAP인증 확대 등 생산부터 선별·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임실 딸기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써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51억원을 확보해 올해 1월 봉천초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완료했으며, 오는 7월에는 딸기 재배하우스 10동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딸기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기반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군은 앞으로도 품질중심의 생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경쟁력을 높여 전국 최고의 명품딸기 산지로 도약하는 한편, 귀농·귀촌과 연계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여름철 심신 회복 웰니스 관광 7월부터 8월까지 진행

장수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양림 성수기를 맞아 외용자연휴양림 장수치유의 숲과 방화동자연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광 트렌드가 단순한 관광이나 휴식을 넘어 건강 회복과 치유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함에 따라 군은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여름 성수기는 휴양림 이용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시기로, 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나홀로 여행객과 소규모 가족 단위 여행객의 수요에 주목해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기존 단체 중심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휴양림 이용객의 특성과 개별 수요를 반영한 자율형 맞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방문객이 산림치유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수형 항노화 산림치유’를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실버 세대의 신체 활력 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노년기 우울감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 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방화동자연휴양림까지 프로그램 운영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산림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청소년 진로콘서트 개최

진로직업체험문화활동 기회 제공

임실군은 지난 20일 청소년문화의집 광장에서 청소년 및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과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청소년진로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임실을 담아 대한민국을 그리다”란 주제로 임실지역의 청소년이 임실을 넘어 대한민국 일원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지역과의 소통과 체험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들과 함께한 1부 진로직업체험은 지역의 체험처가 참여한 멘토와의 만남, VR·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체험, 청소년자치기구와 학부모가 참여한 나눔부스, 진로검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진행한 진로직업체험부스에서는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홀랜드(HOLLAND) 진로검사를 기반으로 직업체험처(농장경영, 의사, 바리스타, 공예, 메이크업, 만화가)를 찾아가 직업전문가와 상담, 체험활동 등 진로와 직업에 대해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었다.

청소년자치기구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청소년공간에서는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청소년시설 만족도조사, 음료 나눔 등으로 진행되었고, 학부모참여 부스에서는 청소년들이 체험을 하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인기를 끌었다.

심민 군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임실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하고 경험을 쌓으며 미래 직업의 전문가로 건강히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상반기 직원 이퇴임식

황현철 농산업건설국장 등

장수군은 23일 군민회관에서 2026년 상반기 직원 이퇴임식을 개최하고 오랜 기간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현철 농산업건설국장, 빈준배 안전재난과장, 박철수 기술보급과장을 비롯한 정형모, 최경훈 등 이퇴임 직원과 가족, 동료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퇴임식은 공로패 전수, 이퇴임자 소감 발표, 기념촬영, 최훈식 장

수군수 추사, 최한주 군의회 의장 추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가족과 친지, 동료 공무원들은 군정과 행정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이퇴임 직원들의 노고에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최훈식 군수는 “오랜 기간 군민과 군정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퇴임 이후에도 장수군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별밤 빛나는 가족 캠핑’성료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캠핑 지역 활력·공동체 가치 확산

임실군이 가족과 이웃, 마을을 잇는 공동체 중심의 주민서비스를 선보이며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군은 최근 자연 속에서 가족 구성원의 소통 기회를 넓히고 ‘이웃사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추진한 ‘임실 별밤 빛나는 가족 캠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세대와 가구를 넘어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누리파크 발물놀이장, 개장 앞두고 현장점검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2일 다음 달 1일 ‘장수누리파크 발물놀이장’ 개장을 앞두고 누리파크를 방문해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이용객 안전 확보와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군수는 물놀이장 내 놀이시설과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를 비롯해 전기시설, 배수시설, 급수시설 등 주요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 등 전기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시설의 정상 작

동 여부와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대책 전반을 살폈다.

이날 최훈식 군수는 “올 여름에도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장수누리파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누리파크 발물놀이장은 오는 7월 1일 개장에 8월 30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일이다. 다만 기상 악화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이 중단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심뇌혈관질환 바로 알기 나서

질환 정보공유로 예방·조기 대응

무주군이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인지도 높이고 예방 및 조기 대응,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강좌 및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23일에는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바로 알기’ 강좌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충남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안순기 예방관리센터장(예방의학과 교수)은 ‘심뇌혈관질환은 시간이 생명이다’를 주제로, △심뇌혈관질환의 이해와 △심뇌혈관

질환 조기 증상 및 응급대처 방법,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예방관리 방법 등을 공유했다.

또한 산림 현장 종사자들이 작업 중 겪을 수 있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등의 주요 증상과 응급대처 요령,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의 중요성 등을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이지영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은 “교육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을 알려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부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완주 비봉면 주민자치위, 산책로 환경정비

완주군 비봉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병희)가 23일 주민자치위원 11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봉생태체육공원 배후에 위치한 산책로 '노적길' 일원에서 예초 및 전지작업 등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적길(약 0.5km 구간) 주변의 무성하게 자란 잡초 제거와 수목 전지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성 향상에 기여했다.

최병희 주민자치위원장은 "바쁜 일중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 삼학동 '균일손칼국수', 착한가게 나눔 동참

군산시 삼학동행정복지센터는 2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균일손칼국수(대표 성연순)를 방문,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균일손칼국수는 손으로 반죽하여 쫄깃한 면발과 깊고 담백한 육수로 만든 칼국수로 손님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우리 맛집이다. 특히 여름철 별미인 콩국수는 으뜸인데, 진하고 목직인 콩물이 면발과 어우러져 그 입맛으로 입소문이 한창이다.

균일손칼국수 대표는 "오랫동안 찾아주시는 손님과 우리 지역주민들 덕분에 가게를 이어올 수 있었다"며 "변함없는 최고의 맛으로 이를 보답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정성을 더하기 위해 착한가게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덕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정성이 담긴 맛깔난 한 그릇의 음식처럼 그 마음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해지도록 우리 협의체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포도 농가 일손돕기

포도 봉지짜기 작업 지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는 23일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영면 고랭지 포도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수급난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아영면 소재 포도 농가에서 캠벨 포도 봉지짜기 작업을 도왔다.

남원시 아영면 일대는 고랭지 포도 재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큰 일교차와 양질의 토양에 의해 최고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가에서는 인력 부족과 고령화, 이상기상에 따른 생육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농부기 집중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봉지짜기는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과실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일시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날 일손돕기에 나선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작업복과



장갑을 갖추고 포도송이마다 봉지를 씌우며 농가의 영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남원=김종원 기자



고창 대산면, 복분자 수확철 맞아 수확 작업에 힘 보태

고창군 대산면(면장 정현영)이 지난 18일, 19일 이틀간 본격적인 복분자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대산면 직원들은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가를 방문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복분자 수확 작업에 힘을 보태며 농가의 부담을 덜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영 대산면장은 "복분자 수확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적기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농가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성덕면協, 취약계층에 여름나기 꾸러미 전달

"시원한 여름 보내길"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2일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다문화 가정 8세대에 여름나기 꾸러미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사업은 무더운 여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꾸러미에는 여름

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담겨 있어 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다문화 가정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 명탐정공인행정사사무소, 장학금 기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명탐정공인행정사사무소 이광호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광호 대표는 군민들의 권익 보호와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명탐정공인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각종 인·허가 신청 대행, 행정심판 및 민원서류 작성, 사실조사 및 증거자료 수집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광호 대표는 부안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퇴직 후에도 행정 전문가로서 군민들의 다양한 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광호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정읍사회복지관, 취약계층에 냉감 매트 지원

정읍사회복지관(관장 정관일)이 지난 22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25가구에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냉감 매트 100여개를 전달하며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번 물품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6년 기획사업인 '희망여름 착착착'의 하나로 추진됐다. 연말에 집중되는 나눔 활동을 여름철로 넓혀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이웃을 미리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안

에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관일 관장은 "기후변화와 예상 냉감 매트 전달해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웃들이 복지관에서 준비한 기능성 냉감 매트로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 행정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 산동면, 취약계층 대상 하지감자 전달·안부 살피

남원시 산동면은 지난 1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사랑의 농산물 함께 심고, 함께 나누고'를 추진하여 수확한 하지감자를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산동면은 읍면동장 1일1가구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의 생활상과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긴급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특화사업으로 마련된 하지감자를 평소 끼니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약 10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하지감자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폈다고 전했다.

안길재 남원시 산동면장은 "매년 복지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산동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여름철 식중독

식중독 원인



충분한 가열없이 해산물, 육류 섭취



오랜시간 실온에 방치된 음식물 섭취



오염된 도마등 주방용품 사용



제대로 세척하지않는 채소류 섭취



〈一事一言〉



디지털 시대, 우리는 왜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는가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고고인류학 박사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 모든 것이 손안에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다.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되고,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되고, 보고 싶은 영화와 음악은 몇 번의 터치만으로 재생된다. 인공지능은 사람 대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인간의 기억까지 대신 저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전 세대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꺼내 들고, 종이책의 냄새를 맡으며, 낡은 LP판에서 흘러나오는 잡음 섞인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 오래된 골목길과 재래시장을 찾아가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첩을 다시 펼쳐 든다. 그리고 불편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디지털은 효율과 속도를 제공하지만, 아날로그는 인간의 감성을 깨우기 때문일 것이다.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 온 손편지 몇 통을 꺼내 읽다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다.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했던 형제들의 안부, 군대 친구들이 보내는 편지, 이제는 세상을 떠난 이의 마지막 글

씨가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아 있다. 뽀뽀뽀뽀한 글씨와 눌러쓴 흔적 속에는 그날의 마음과 체온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잠시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사람과 감정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난다. 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천 개의 문자 메시지는 편리하지만 오래 마음속에 머물지 않는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에는 수만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다시 꺼내 보는 사진은 많지 않다. 그러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 잊고 지냈던 얼굴과 시간들이 살아난다. 사진은 기록이지만, 사진첩은 추억이다.

인간은 원래 감각적인 존재이다.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시간을 들여 기다리면서 기억을 만든다. 디지털은 시간을 압축하지만, 아날로그는 시간을 축적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것들을 그리워한다.

공중전화 앞에서 동전을 손에 쥐고 순서를 기다리던 기억, 늘어진 카세트테이프를 연필로 감아 돌리던 모습, 연탄난로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던 굴 냄새는 아

련한 과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불러낸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다. 그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체온을 나누었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다.

기술은 앞으로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가상공간은 현실과의 경계를 더욱 흐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사람은 결국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한다. 손편지 한 장, 오래된 사진첩, 누군가와 마주 앉아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디지털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아날로그의 몫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오래된 것들 앞에서 문득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그 속에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사람의 체온이 남아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독자투고

달콤한 '차익 유혹' 뒤 숨은 뿔, 기관 사칭 사기 조심하라



최근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자영업자들의 간절함을 노린 악질적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로 경찰서, 구청, 공공기관, 대형 병원 등을 사칭한 '노쇼(No-Show) 대리구매 사기'다.

전형적인 수법은 이렇다. 사기꾼들은 공공기관의 직원 자처하며 수백만 원 상당의 단체 주문이나 대형 계약을 미끼로 접근한다. 자영업자가 예약 확정에 안도할 때쯤, 이들은 본색을 드러낸다. "행사에 필요한 특정 물품(예: 특정 브랜드의 와인, 기념품, 특수 식자재 등)이 필요한데, 예산 집행 절차상 기관에서 직접 결제가 어려우니 사장님이 대신 구매해 주면 나중에 음식값과 함께 한꺼번에 정산해 주겠다"며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싸게 살 수 있는 도매업체를 안다"며 친절하게 '납품업체'의 연락처까지 소개해 준다. 하지만 이 업체 역시 한때인 공범이다. 당장 대형 매출

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과 대리구매를 통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자영업자들은 급한 마음에 의심 없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물품 대금을 송금하게 된다. 그리고 돈이 입금되는 순간, 공공기관 간부와 납품업체는 동시에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린다. 예약된 단체 손님도, 대리구매해 준다는 물품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기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자영업자의 '불안감'과 '가장 신뢰할 만한 기관'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풀고, 대형 계약을 놓치고 싶지 않은 조급함이 눈을 가리기 십상이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 스스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3가지 예방 수칙이 있다.

첫째, 공공기관은 절대로 사적인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공공기관과 관공서, 병원의 물품 구매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나 공식적인 예산 집행 절차를 거치며, 개인 계좌나 특정 업체를 지정해 대리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다.

둘째, 의심스러운 예약은 반드시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라. 상대방이 제공한 명함이나 전화번호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검색이나 '114'를 통해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를 확인한 뒤, 실제로 그런 행사가 있는지,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지 직접 유선으로 교차 확인해야 한다.

셋째, 낯선 납품업체의 선입금은 절대 금물이다. 거래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입금만을 요구하거나, 예약자가 특정 업체를 완강히 지정하며 결제를 재촉할 때는 일단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단체 예약 시에는 반드시 일정 금액의 예약금을 먼저 받거나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만 진행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 한 번 송금된 돈은 단 몇 분 만에 대포통장을 통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대책보다는 철저한 사전 의심만이 최고의 방어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지역 사회 전체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시급한 때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오경택

사설

첫 데드크로스, 민심의 경고를 가볍게 들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여론조사는 조사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시적 등락 또한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단순한 수치 변화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정권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민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이기 때문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핵심 지지층의 이탈 조짐이다. 정권 초반 지지율 하락은 대개 중도층에서 먼저 나타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권의 기반으로 여겨졌던 계층에서도 실망과 피로감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정책 불만을 넘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여론은 지방선거 이후 지도부 책임론과 계파 갈등, 당권 경쟁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민생은 어려운데 정치권은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이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쇠신과 통합보다 갈등과 분열

에 가까워 보인다.

정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야당의 공세가 아니라 스스로의 오만이다. 높은 지지율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는 얻기보다 잃기가 훨씬 쉽다. 역대 정부들도 초기의 높은 지지율에 안주했다가 민심의 급격한 이반을 경험한 사례가 적지 않다. 권력은 상승 국면보다 하락의 시작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책임 전가가 아니다. 국민이 왜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지 냉정하게 성찰하는 자세다.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정 기조를 점검하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인적 쇄신과 정책 보완에도 나서야 한다. 여당 역시 계파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첫 데드크로스는 정권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심이 커든 노란불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붉은 신호등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 국민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시

그때 / 김용택

허전하고 우울할 때
조용히 생각해 잠길 때
어딘가 달려가 달고 싶을 때
파란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둥둥 떠가면 더욱더

저녁노을이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동근 달을 바라볼 때
무심히 앞산을 바라볼 때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깃거릴 시절 때
빗방울이 떨어질 때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할 때
떠나온 고향이 그리울 때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내 그리움의 그 끝에
당신이 서 있었습니까

시인 약력 : 1948년 임실 진매마을 출생.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이 있다. 임실 마암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다. 교직기간 동안 아이들의 시를 모아 펴내기도 했다. 1982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21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햇불'에 '섬진강 1'의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6년 '김수영문학상', 1998년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2001년 독립단편영화 '들'에 이어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동양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8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순창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의 언론”

전북 Times

[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의정 결산]

“도민과 함께한 의정, 전북 발전의 힘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출범한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가 4년간의 의정 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전북의 변화와 성장을 이끈 성과를 되짚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는 전북도민의 대의 기관으로 지난 4년간 도민의 삶과 전북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입법·예산·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했고,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 유치로 기회를 맞은 새만금 개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의정 역량을 쏟았다.

새만금 SOC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될 당시에는 진실규명 대응단을 발족하고 범도민적 행동을 이끌어내며 예산 원상 회복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전북의 자치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의원 정수 확대를 비롯해 전북 몫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며, 상임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 대응하는 등 정책 의회로서의 기능과 책임 실현에 주력했다.

도의회의 지난 4년 활동과 성과를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 의회운영위원회

제12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 부위원장 염영선, 김명지·김성수·김슬지·권요안·오현숙·김동구·김이재·장연국·전용대 의원)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내부의 제도 개선과 집행부와의 정무적 협치에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우선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청렴성 강화와 제보자 보호 체계를 마련했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해 심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외유성 출장 차단과 투명성 제고를 추진했다.

또,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고, ESG 경영실천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운영에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경영의 가치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의회 사무처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의정 소통 창구 역할에도 만전을 기했다. 의회 안팎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도 집행부와 의정·수시 회의 체계를 가동해 주요 쟁점을 원만하게 조율하고, 의원 전체 연찬회를 개최하

첨단산업·새만금·위기 대응 등 미래 전북 위한 성장 전략 견인

여 법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무 역량을 높이는 등 의원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감독자이자 살림꾼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 김슬지, 강태창·김명지·염영선·정종복 의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입법 활동과 행정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의정 활동에 임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인구 유입, 도민 소통 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례 제정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그중에서도 맞춤형 조례로 도민들의 의정 제감도를 높여 나갔다.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청년의 상호 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도민 참여 확대와 소통 기반 강화를 도모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향상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장 점검과 정책 제언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 부위원장 권요안, 김정수·오은미·오현·황영석 의원)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도민 체감도가 높은 조례를 발굴함으로써 맞춤형 도민 수요에 대응하고자 노력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인 단체와 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힘썼다. 쌀값 폭락, 필수 농자재 지원 확대, 기후 재난에 따른 피해 등 시급 현안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복지 분야에서는 초고령사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통합지원, 간병인·고령장애인·출산 가정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민관 토론회 등 소통의

장을 주관하며 해결 방안에 나섰다.

환경 분야 역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장과 옥저호 녹조 발생 지역을 직접 찾아가 예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환경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와 함께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집행부에 적극 제안하며,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정 역량을 쏟았다.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 김동구, 김만기·김이재·이병도·임종명·서난이 의원)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 되는 가운데,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안착과 피지컬 AI(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미래 첨단 전략 요충지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했고,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업인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발생 시 피해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게임·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전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 부위원장 김성수, 박용근·이명연·김희수·장연국·김정기·한정수 의원)는 문화 생명과 직결된 북한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도민 수혜권 확대를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는 입법 활동에 힘써왔다. ‘축사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기재해예방 및 지원 활성화 조례’ 등을 발의·제정하며 관련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마련해 왔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외로움 극복 및 예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통해 안전이 우려되는 취약 계층에 대한 환경 개선에 나섰다.

현장 소통에도 힘을 기울였다.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소방관을 격려하는 등 원광대학교병원 중증외상소생실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XR 스튜디오를 찾아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제12대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행정 시스템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행적 예산 낭비 구조에 제동을 걸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심 전북의 기틀을 견고히 다지는 데 만전을 기했다.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 부위원장 전용대, 이병철·강동화·윤정훈·윤영숙·윤수봉 의원)는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입법과 예산·감사 등 전 영역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학생의 통학권·복지·먹거리 안전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와 ‘온길버스 운영 및 무상 통학권 보장에 관한 조례’, ‘다문화 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등을 제정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도 했다.

교육 현장의 안전관 확충의 근거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 조례’,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등이다.

또한 남원예술극악고등학교를 비롯한 현장 중심의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유보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등 성과도 올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는 등 교육공동체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교육 현장을 찾아 학부모, 교직원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맞춤형 입법의 결실을 보기도 했다. 온길버스 운영으로 무상 통학권 보장이 대표적이며,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취약·소의 학생을 위한 제도를 신설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장정철 기자

... [인터뷰] 문승우 도의장 ...



도민과 함께 만든 4년, 전북 성장의 시간

“12대 도의회는 도민 곁에서 듣고, 고민하고, 답을 찾으며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의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문승우 의장은 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를 ‘전북 몫을 지키고, 특별자치도 시대의 기반을 다진 의회’로 평가했다. 문승우 의장은 특히 도의원 정수 확대, 새만금 조기 개발 촉구 등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활발한 대내외 의정 활동이 돋보였다고 꼽았다.

문 의장은 “지역 현안 해결, 민생 안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씩씩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을 위해 일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4년이었다”고 회고했다.

문승우 의장은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의원정수 확대를 이끌어내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한 것을 12대 의회의 대표적 결실로 평가했다.

특히 탄핵 등 국가적 혼란이라는 위기 속에서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며 지방의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의미 있게 돌아봤다.

문 의장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과 국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2대 의회가 걸어온 길은 도민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의 과정이었다”며 “13대 도의회도 도민 곁에서 더욱 신뢰받은 의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for Biota-3 medical device. Text includes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and '안전에 일상을 더하다'. Logo for MEDICAL 티에프메디칼 is visible.